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6주일 (한국순교자 현양대회)  
 제 27권 44호 (다해) 2007.9.30

## [묵상]



## 하나

나무가 뿌리로 살면 꽃피워 열매 맺고

낙과(落果)하여 씨 얻기가 하나인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 목숨을 보전하려면 영원히 죽고

한 목숨을 버릴 각오면 영원히 사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하미카엘 아기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신순철 가브리엘 가정 홍광선, 최조앤 가브리엘라
주 일 아침미사	(연) 김금란 수산나, 이현호 오한, 오엘리사벳과 오순석 윤희경 라파엘, 유부서, 이정기 클레멘스, 이영록, 이은중 이운복, 장연수 마리아, 정호순, 이금용, 이영자 마리아
	(생) 이종민 요셉,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권순애 데레사, 최애경 안나, 박금례 소화테레사 이규상 클레멘스와 민상 오한, 이옥순 마리아 최옥희 데레사, 최양숙 안젤라, 조희숙 안젤라 원국환 데레사, 송선자 데레사, 신덕례 데레사 오연주 마리아 고레미, 천광락 야고보와 리디아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답송	◎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께서 돌리보내실제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 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 그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레를 남녘땅 시냇물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가던 그들은 곡식단 들고 울며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루카(Luke) 9,23-26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3	343
봉헌	하느님 그리고나	256,209
성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	284,307
파견	Blessed be the name	336

4. 천주교 소개

▶ 형제애로 보살피 주는 교회 공동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다.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신자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신자들은 본당과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여 하느님을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면서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자들의 형제애는 굳건한 신앙생활과 친교의 바탕이 된다. 예비신자들도 이러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초대받은 것이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들이 모인 신앙 가족이다. 그리고 교구와 본당은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터전이며,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는 신앙의 내용을 실천하는 장소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구와 본당에서 형제애로써 친교를 맺고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 예비신자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교리반에 참여하는 것도 이미 이 친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신자들은 물론이고, 예비신자 때부터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주일 미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에 새겨 실천해야 한다. 또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부나 수녀뿐 아니라 대부모에게 상담을 청하거나 주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성경이란 무엇인가?

천주교에는 '성서' (聖書), 또는 '성경' (聖經)이라 부르는 경전이 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등 인간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다. 우리는 천주교 신앙을 갖기 전부터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을 통하여 창조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관한 이야기 등 성서의 일부 내용과 이미 친숙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 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된다.(2티모 3,15-17)

◆(계속 - CBCK 제공)

### 십자가와 그 의미

오늘 복음(루카 9,23-2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자신만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매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과 같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모두 자기 나름의 십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자신의 십자가 가장 커 보이고 가장 무겁게 느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통, 아픔, 고난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하고 매일 짊어지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이 고통이나 두려움을 당하면 그 상황에 대해 직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행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불가피한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다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의 의미를 찾는다면 고통에 대한 수용력은 더욱 넓어지는 반면에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아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 직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 22,42)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미를 성부에게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수난에서 영광을, 고통에서 환희의 의미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의미란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 김 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성인들께서도 자신들의 순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기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순교자의 후예들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 정원순 토마스 데아퀴노 수사신부  
 <지극히거룩한구속주회>

### 이번주 전례 봉사자

###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민상 요한	김교복 레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민솔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채승희 에스터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혜경 율리아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사목회 회장단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재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9월30일)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미사 중에 특별헌금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1,768단    ☞ 총 합계: 195,267단

10월

- ◆ 봉성체: 10월4일(목), 오전9시30분부터
- ◆ 성시간: 10월4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 성모신심미사: 10월6일(토), 오전8시30분

◆ 주일 학생미사 9월30일부터 재개

- 그동안 방학중이던 학생 영어미사가 9월30일(오늘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들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일미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개강

- 9월30일(오늘주일)부터 주일학교가 개강합니다.
- 추가 등록: 첫째자녀 \$100, 둘째자녀 \$80, 셋째자녀 \$60, 넷째/다섯째는 무료, 추가등록비 \$10)
- ※ 자모회비: 가정당 1년에 \$40

◆ Homeless People 돕는 첫 행사

- 지난 한달 여 준비해온 노숙자 돕기 행사에 본당 신자 10여 명이 자원했습니다.
- 일시: 10월14일(주일) 오후 4시30분
  - 장소: 롱비치 Project Achive Center (59명 대상)
  - 데리야키 요리를 잘하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 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2007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증거했던 한국순교자들을 본받고 그 정신을 기려 높이는 현양대회가 LA 대교구 Alexander Salazar 주교님(San Pedro 지역)의 주례로 오늘 주일 우리 본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유해 거동에 이어 현양미사를 드리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생애를 다룬 성극을 공연(오후 2시)합니다. 강당에서는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전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현양대회를 통하여 순교 선열들의 불타는 신앙을 마음에 새깁시다.

◆ 레지오 마리에 재창단

-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레지오 마리에 재창단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입단을 원하는 형제자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첫 모임: 10월3일(수), 저녁미사 후 8시15분

◆ 백사위 한인성당 2008년 새해 달력을 주문합니다.

우리 본당의 새해 달력 하단에 광고를 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10월7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광고지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전 신자 대상 “은혜의 밤”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30일(금) 오후7시, 성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  
(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고천용	구본엽	김 명	김병철
	김양금	김용현	김정웅	김종선	김철수	남명자
	민경근	민상기	박선희	박인식	박대준	배태임
	서영주	송재훈	송호창	신순철	오수인	유근우
	육근주	윤재림	이경태	이귀분	이병우	이상규
	이용식	이재정	이현주	임연조	장정진	정상봉
	정인식	조영희	주태청	채양석	최상만	홍기주
	홍석철	홍숙자	황인종	황지영		
	합계 : \$ 5,375					
	미사헌금 : \$ 3,120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구본엽	김 명	김양금	김철수
	남명자	민경근	민상기	박선희	박인식	박대준
	송호창	신순철	오수인	유근우	육근주	이경태
	이귀분	이병우	이상규	이용식	이재정	이현주
	장정진	정상봉	조영희	주태청	채양석	최상만
	홍기주	홍석철	홍숙자	황인종	황지영	
	합계 : \$ 3,916.25					
	감사헌금: 김인영과 크리스틴, 박정람, 최양숙					

## 공지 사항

###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 9월30일 순교자 현양대회: 대건회와 원서부부회가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음식부스를 마련합니다. (맛있고 푸짐한 음식 \$3 균일, 타본당 신자들은 무료식권을 받으세요.)
- 10월7일: 소공동체(김밥 \$3.50 떡 \$4)
- ◎ 현양대회 참석차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잘 안내합니다◎

## 남가주 소식

###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일일 점心和 찻집' 행사

- 장애 언니들이 직접 봉사하는 사랑의 식사와 차
- 일시: 10월6일(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 장소: 작은 예수회, 1137 Arapaho St. LA 90006
  - 음식: 추어탕과 갈비백반
  - 가족단위 방문도 환영합니다. ☎ 213-387-3301
  - \* 행사 도우미 자매님을 기다립니다.

### ◆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테마별로 강좌합니다.
- 10월25일: 기초강좌와 추수감사절
  - 11월29일: 기초강좌와 크리스마스
  - 12월27일: 기초강좌와 뉴이어(새해)
  - 장소: 성 아그네스성당 한인회관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 재료비는 본인 부담

### ◆ 2007년 가을 "선남선녀 만남의 장" 제 4기

- 전문가들의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이 되도록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 일시: 11월9일(금)~11일(주일)
  - 장소: 데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신청자격: 26~39세 미혼남녀, 가톨릭교회 안에서 혼인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남녀신자 각 20명
  - 참가비: 숙식포함 \$250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 이민법 개정 및 단속/고용주 처벌 관련정보 웹사이트

-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회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올바른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krcla.org](http://krcla.org)를 통해 이민 단속과 고용주 처벌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23-937-3718 김용호(민족학교 이민자권익 코디)

## 이번 주 단체 모임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 1시
----------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종환 야고보 562-628-1955 10/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김정웅 요한 619-4343 10/13(토) 오후 6시
	3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539-3396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해은 도로테아 200-0512	김대우 비오 378-8763 10/20(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박명순 안나 750-0540 10/9(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희자 마리아 791-3703 10/9(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박래경 헬리카 972-1616 10/12(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최펠릭스&차안드레아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중열 토마스 아퀴나스 784-0460 10/13(토) 오후 7시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유도미니코&도미니카 714-680-4963. 10/12(금) 오후 7시30분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마스칸&안젤라 541-7644 10/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귀란 아네스 377-6752 10/17(수) 오전 10시30분

## 아! 조선의 순교선조들이시여

둥둥둥  
 둥둥둥  
 등두두둥  
 한강수 굽이도는 새남터 백사장에  
 북소리 강바람에 울리어 퍼질때에  
 그 북소리 천상에서도 울리었어라.

하늘은 열리고  
 지금히 거룩하오신 천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모님과 함께  
 모든 성인들과 천상판관을 거느리시고  
 크오신 기쁨속에 마중하셨음이니  
 이는 오로지 창주조를 향한  
 온전한 향주삼덕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이요  
 천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는 기적이라  
 천상에 세워진 순교의 기념비와  
 님들께서 쓰신 승리의 월계관은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리이다.

동방의 끝  
 백의의 민족  
 고요한 아침의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순교의 피와 땀이 아니 흘러진곳 없으니  
 일만 이련가, 이만 이련가, 삼만 이련가  
 기록조차 없으나 그것이 무슨 대수리요  
 그 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아름답게 피어난 무궁화 꽃들을  
 삼라만상이 똑똑히 보게 되리이다.

신앙의 새싹이 움트자마자 시작된  
 그 처절하고 참혹한 박해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어진 님들의 순교사를 되새기다가  
 목이메고 눈물이 앞을 가려와  
 중단한지 그 몇번이련가!  
 하오나 그 시련이 제아무리 크다한들 잠시요  
 받으시는 천상영광은 끝없이 무궁하오시리니  
 그것으로 위안이 되나이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가신  
 인류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  
 그 참혹하고 처절한 사랑의 길을  
 그토록이나 용감하게 뒤따르신 님들이시여!  
 참으로 자랑스러운 순교 선조들이시여!  
 당신들 께오시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속의 진주를 얻으셨으니  
 참으로 지혜로우셨습니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하였으니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력, 쾌락이  
 제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자랑할들  
 잠시후면 안개처럼 흔적없이 사라지는 허무요,  
 그 천상진주는 실로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리이다.

님들은 이제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느님 나라에서  
 하늘 부모님과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무한무궁토록 누리고 계시오리니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저희 후손들을 위하여  
 천주님께 전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저희들도 자랑스러운 님들의 후손답게 살다가  
 잠시후 님들과 해후하여  
 함께 영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이 모든 일을 참으로 오묘한 신비속에 이루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천주님께서서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 멘

구세주 강생 2007년 9월 순교자 성월에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외부회원  
 ◆ 최귀환 펠릭스